



2면  
문 대통령 "재난지원금 기부  
선의의 자발적 선택... 주요안 돼"

# 전주매일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음 4월 14일) 제252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난 4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전북도 탄소산업 수도 건설 후속대책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 전북도, 탄소산업 새 역사 쓴다

### 탄소법 국회 통과로 국가주도 진흥원 지정 눈앞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로드맵 본격

전북도가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탄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구축과 체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는 등 탄소융복합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로 했다. 도는 지난 4일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등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먹거리인 탄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3·16면> 국가 차원의 종합적 탄소산업 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만 추진해 왔던 탄소융복합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이에 전북도는 소재생산, 중간재, 부품(복합재)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산업생태계의 완성을 통해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 권

트플터인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그동안 전북과 대한민국 탄소산업을 이끌어 온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될 수도 있는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이를 사두를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2020~2024년 5개년)을 수립해 탄소소재융복합 산업의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소재산업의 생태계 체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은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구체화하면서 향후 5년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로드맵 제시 및 과제를 발굴·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지정된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포함해 전라북도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에서 탄소산업의 전주기 이력지도록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생태계도 조성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국산 탄소섬유의 적용분야를 확장하고 다양한 응용제품에 대한 실증 기준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

부처가 주관하는 탄소융복합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탄소융복합 소재를 활용한 응용제품의 안정성과 우수성이 실증되면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한 다양한 응용제품의 출시와 활성화로 탄소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예상된다. 이미 전북도는 중기부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앞으로 전문가 심사 및 컨설팅을 거쳐 이르면 6월 말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추진과 함께 탄소소재 관련 전문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제)을 개정된 법에 따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받아 탄소융복합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상임위 단계의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둔다'라고만 정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은 '진흥원을 기존 탄소소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융복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진흥원이 반드시 필

요하지만, 신규 설립시에는 최소 5~6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고, 기관의 위치 선정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한 쟁점도 염연히 존재했는데 수정안에서 추가된 조항으로 인해 기술원의 진흥원 지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기술원은 2010년 중성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하고 2013년 효성과 함께 세계 세 번째로 T-700 탄소섬유를 출시했으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수많은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탄소소재분야의 정책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는 등 정책기능도 인정받는 등 전국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어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3년여의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진 탄소소재법 개정은 지역에서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게 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전라북도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지급

### 도내 82만 가구 총 5116억 투입 자체 콜센터 운영... 순차 지급

도내 82만 가구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5100여억원이 4일부터 순차 지급되는 가운데 전라북도는 자체 콜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재난지원금 총 지원가구는 81만 8,743세대로, 1인 가구는 34만 2,912세대, 2인 가구는 19만 2,580세대, 3인 가구는 12만 1,546세대, 4인 이상 가구는 16만 1,705세대다. 지급규모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을 1회 지급하며, 이를 위해 5,116억원이 투입된다. 시군에서 이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등 자세한 사항은 4일부터 운영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신청 절차는 대상자가 전화 등으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방문 접수 후 대상자에게 재방문해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문자 발송 후 포인트 지급과 지급장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현장지급 형태 2가지로 이루어진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1~2일 이내 신청자에게 확정 문자 발송 후 포인트로 지급되며, 선불카드와 상품권은 대상자 확인 후 주민센터와 은행에서 지급된다. 이의신청은 4월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된다. 처리 절차는 주소지 읍면동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전달하고 시군구에서는 가구 및 가구원 조정 및 대상자 DB 반영 후 읍면동에 송부하면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대상자 조회나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온라인 서버 다운과 출서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요일제'를 운영한다.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고, (토·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급수단은 현금의 경우 신청 없이 계좌 이체되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이다. 현금지급 대상자는 전체 81만 8,743세대의 20%인 16만 1,070세대로, 756억원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신청하며,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5월18일부터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온라인 신청 시 세대주가 5월18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중에서 5월 18일부터 하면 된다. 찾아가는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접수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김진성 기자